

제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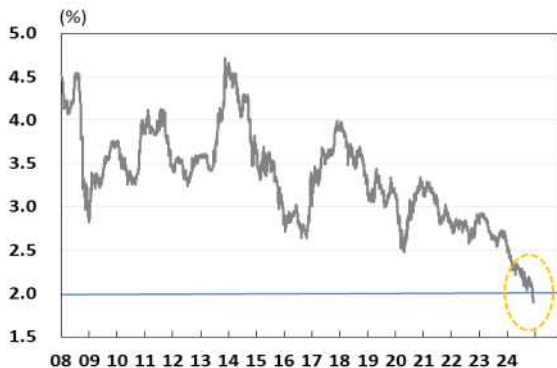
중국 국채금리 하락 배경 및 평가

- ◆ 최근 **중국 국채금리**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**사상 최저치** 기록(12.10일 10년 만기 국채금리 1.897%)
 - 이는 **부동산 경기 부진** 등의 **대내적 요인** 과 **대미 무역마찰 심화 가능성** 등 **대외적 요인** 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 - 다만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**채권공급 증가** 등으로 **하락 폭은 제한될** 전망

[최근 중국 국채금리 추이]

- 최근 중국 정부의 연이은 부양정책*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국채금리가 하락세 지속
 - * 9월 이후, 기준율 0.5%p 인하, 장기 유동성 1조 위안 공급, 정책 금리·부동산 대출금리 인하,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
-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12.2일 2%를 하회(1.976%)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(12.10일 현재 1.897%)
- 특히 30년 만기 국채금리의 경우 일본 30년 만기 국채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한 데 이어 금리차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

중국 10년 만기 국채금리 장기 추이



중국 및 일본의 30년 만기 국채금리



자료: China Security Index, Wind

[중국 국채금리 하락 배경]

- 중국 국채금리 하락은 부동산 경기 부진 등 대내적 요인과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미 무역마찰 심화 가능성 등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 - (대내적 요인)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및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확대
 -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(24.1Q 5.3% → 2Q 4.7% → 3Q 4.6%)되는 가운데, 인플레이션도 11월 중 전년동월대비 0.2%를 기록(23.3월 이후 1% 하회 지속)
 - 한편 최근 중앙정치국회의(12.9일)에서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'온건'(穩健·중립) 대신 '적절한 완화'(適度寬松)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예고
 - (대외적 요인) 트럼프 당선에 따라 대중국 수출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수요 부진 지속
 - 트럼프의 대중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, 중국의 제조업 경기회복 및 글로벌 공급망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
[평가 및 전망]

- 중국의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일본보다 낮아지면서 저물가, 저금리, 성장잠재력 둔화*로 대변되는 일본의 '잃어버린 30년'을 중국도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
 - * 30년 만기 국채금리 하락은 시장에서 중국의 중장기 경기둔화 가능성을 높게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
- 한편 중국의 경기부양 정책이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향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라 채권공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 하락 폭은 제한될 전망
 - 다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이미 고착화되어 재정·통화 정책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당분간 국채금리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